

- 주요 뉴스: EU-영국, 러시아 2차 제재 결정했으나 SWIFT 배제 등 의견은 엇갈려
 - 러시아 정유업체, 서방이 직접적인 제재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큰 타격
 - 미국 1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전년비 6.1% 상승, 금리인상 압력 지속
 - 러시아 푸틴 대통령, 중국 시진핑 주석에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회담 용의 밝혀

- 국제금융시장: 러시아-우크라이나 대화 기대감에 위험자산 선호 확대
주가 강세[+2.2%], 달러화 약세[-0.6%], 금리 보합[0bp]

- 주가: 미국 S&P 500 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단기 해소 가능성에 강세
유로 Stoxx 600 지수는 對러시아 제재의 강도가 크지 않을 전망과 함께 강세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우크라이나 리스크 완화에 따라 약세 전환
유로화 가치는 0.7% 상승, 엔화는 약보합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보합
독일은 유럽증시 급등 등 위험자산 투자 확대 영향으로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98.6원, -3.8원) 0.3% 하락, 한국 CDS 1bp 상승

		2/25일	2/24일	전일대비			2/25일	2/2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384.7	4,288.7	2.24%	국채 금리 10y	미국	1.96%	1.96%	0bp
	유럽	453.53	438.96	3.32%		독일	0.23%	0.17%	6bp
	중국	3,451.4	3,430.0	0.63%	CDS 5y	한국	29bp	28bp	1bp
	일본	26,477	25,971	1.95%		중국	61bp	58bp	3bp
	한국	2,676.8	2,648.8	1.06%	위험 지표	EMBI+	-	530	-
환율	달러지수	96.54	97.09	-0.61%		VIX	27.59	30.32	-9.00%
	유로화	1.1268	1.1192	0.68%		WTI유	86.82	92.81	-1.31%
	엔화	115.55	115.53	-0.02%	원자재	구리	431.0	449.8	0.36%
	위안화	6.3175	6.3292	0.18%		금	1,791.5	1,903.9	-0.76%
	원화	1,201.6	1,202.4	0.07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EU-영국, 러시아 2차 제재 결정했으나 SWIFT 배제 등 의견은 엇갈려

- EU는 외무장관회의를 열고 푸틴 대통령 및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역내 자산 동결과 외교관의 유럽 내 이동 제한 등을 포함한 對러시아 2차 제재를 채택. Roberta Metsola 유럽의회 의장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(SWIFT)에서의 러시아 배제를 포함한 추가적인 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
- 영국은 제재에 동참한다면서 러시아를 SWIFT에서 즉각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. 이탈리아도 러시아 배제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
- 반면, 독일 정부 대변인은 SWIFT에서의 러시아 퇴출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독일 기업들의 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. 프랑스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유보적인 입장이라면서 많은 국가들이 원유 및 가스 운송에 대해 제재하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
- 미국 역시 러시아 원유는 제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재확인하면서 러시아의 피해는 최소화하되,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의 역풍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러시아 정유업계, 서방이 직접적인 제재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큰 타격

- Bloomberg 집계에 따르면 24일(현지시각) 러시아 정유업체들이 우랄산 원유 가격을 브렌트유보다 11.6달러 낮은 수준에 입찰했음에도 결국 낙찰되지 않음
- Fact Global Energy는 무역업자 및 선박 중개업자 등이 러시아 관련 거래를 꺼려하는데다 금융 제재 등으로 결제지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

■ 미국 1월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지수 전년비 6.1% 상승, 금리인상 압력 지속

- 미국 PCE 물가지수가 전년동기대비 6.1% 상승해 '82.2월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월치(5.8%)와 예상치(6.0%)를 상회. 또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월 개인소비지출도 전월 대비 2.1% 증가
- Christopher Waller 연준 이사는 보고서에서 노동력 부족과 경기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3월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

■ 러시아 푸틴 대통령, 중국 시진핑 주석에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회담 용의 밝혀

- 중국 국영방송 CCTV에 따르면,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협상을 원한다고 밝힘. 이에 시진핑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변

■ 중국 당국, 은행 및 보험사에 저가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지시

-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, 부동산 시장의 안정 유지를 위해 은행이 저가 임대주택 개발 관련 대출을 늘리고 보험사도 장기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힘. 관련 당국은 올해 저가 임대주택 24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

■ 인도, 공급 불확실성 확대에 이란산 요소 수입을 재개할 방침

-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, 인도 관료는 국제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, 지난 '19년 이후 중단했던 이란으로부터의 요소 수입을 재개하고 루피화로 결제하겠다고 밝힘

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, 한국에 사이버 보안 지원 요청

-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정치, 금융, 군사 등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바란다고 밝힘. 또한 러시아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하이테크 국가인 한국이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

■ 우크라이나, 체르노빌 원전의 방사능 수치가 통제 수준을 상회했다고 우려

-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한 뒤 방사능 수치가 통제 수준을 상회했다며 유럽 전체에 심각한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힘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2/25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월 신규주택판매(전월비): -4.5%, '21년 12월(11.9%), 예상치(-1.0%)
- 미국 2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: 62.8, 1월(61.7), 예상치(61.7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31, E-mail jgbaek@kcif.or.kr